

“산에 핀 들꽃 ‘예술 옷’ 입으면 더 활짝 피죠”

광주 미르치과병원 호남권 첫 ‘의료기관인증’

26일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개최도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미르치과병원(대표원장 정병초·사진)이 최근 치과병원 의료기관인증평가 결과, 호남권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의료기관 인증제는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주관해 시행되는 제도로써,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치과병원은 2014년에 첫 시행되었다.

2003년 개원 이후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든 경영이념 아래 꾸준히 진료의 표준화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미르치과병원은 2009년 시범평가 때부터 적극 참여해 준비를 해왔다. 올해 제도 시행 직후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요청해 지난 7월 환자 안전과 질 향상, 진료체계 등 202개 조사항목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획득했다.

정병초 대표원장은 “개원 이래 진료의 표준화, 의료서비스 및 진료 질 향상 등을 위해 ISO9001인증,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하는 등 전 임직원이 단결해 지속적으로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경영이념에 따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르치과는 오는 26일 ‘미르치과병원장기 생활체육 광주시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한다. 이웃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게이트볼대회는 올해로 8회를 맞았다. 이 대회에는 매년 5개구에서 36개팀, 2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시청자미디어센터-전남대 평생교육원 협약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배승수)는 22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대회의실에서 전남대 평생교육원과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제공>

광주·전남재향군인회, 영호남 교류 행사



광주·전남재향군인회 이연득 회장과 임직원 등 40여명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호·영남 행사를 마친, 동서화합을 통한 향군 회원 간 화합과 단결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전남재향군인회 제공>

‘한글 꽃꽂이 발표회’ 앞둔 윤숙일 밀알꽃꽂이연구회장

오늘·내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전국 50여명 60여 작품 전시

“꽃은 자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소중한 사람과 애어어 아이같이요. 꽃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울 수 있지만 여기에 예술적인 손길을 더해준다면 아름다움이 배가 될 수 있어요. 꽃은 마음의 안정과 젊음을 주는 선물입니다.”

올해로 창립 45주년을 맞은 밀알꽃꽂이 연구회 윤숙일(68) 회장이 깊어가는 가을을 꽃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꽃꽂이 작품전시회를 준비했다. 한글 창제 568돌을 앞두고 24개의 한글 자음·모음 틀에 꽃꽂이를 하는 ‘한글 꽃꽂이 발표회’다.

지방 꽃꽂이 연구회는 최초로 시도하는 작품전으로, 지난 2011년 윤 회장의 스승인 이옥자(83) 옥 플라워 아카데미 초대회장이 국내에서 처음 시도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마련했다.

“그동안 꽃꽂이는 일파벳을 표현한 작품들이 많았어요. 스승이신 이옥자 선생께서 아름다운 우리 한글로 표현해보자고 3년전 장안을 하셔서 이번이 그 두 번째 발표회입니다. 고려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먼길을 달려와 발표회를 위해 힘써주신 스승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광주 꽃꽂이계의 대모로 불리는 윤 회장이 꽃과 함께 해 온 시간은 올해로 벌써 45년째

다. 스물셋의 젊은 나이에 막연하게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에 ‘밀알화원’이라는 꽃집을 열었던 윤 회장은 이후 본격적으로 꽃꽂이를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 서울을 오가며 공부를 시작했다. 매주 한차례씩 한 주도 빠짐없이 새벽기차로 서울에서 꽃꽂이 레슨을 받은 세월이 꼬박 7년이였다.

배움의 열정은 실력으로 인정받아 그의 손재주를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졌다. 윤 회장은 1974년 밀알꽃꽂이회 광주지부를 창립해 본격적으로 기술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1976년에는 광주에서 처음으로 꽃꽂이 작품전을 열기도 했다. 이후 1983년 사단법인 한국플라워디자인협회 밀알꽃꽂이연구회로 다시 태어나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꽃꽂이를 배운답시고 수년동안 투자한 금액도 만만치 않았어요. 남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자식 한명을 의대에 보낸 만큼의 투자를 했다’고 말이지요. 지금도 그때의 열정을 생각하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매일 한차례씩 서울을 오가며 타 단체 회장들과 세미나를 통해 꽃꽂이의 흐름을 익히고 글로벌 기술도 연마하고 있다. “과거 동양적인 꽃꽂이는 산야에 자생하고 있는 꽃을 자연에 가깝게 만드는 것에 그쳤다면 요즘의 꽃꽂이는 화려하고 다양해졌다고 할까요. 가정집에서 소박하고 자그맣게 했던 것이 시대 흐름에 따라 백화점 로비나 쇼윈도우를 이용해 설치미술처럼 화려해지고 대형화 되어가고 있지요.”

꽃꽂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



밀알꽃꽂이 연구회 윤숙일 회장이 꽃꽂이로 표현한 한글 ‘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다. “꽃을 있는 그대로 두고 보면 될 것을 왜 꺾어다가 작품활동을 하느냐고 항의하는 분들도 더러 있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했죠. 그대로 두는 것도 예쁘지만 산야에 버려진 풀과 꽃을 가져다가 예술작품으로 재탄생 시킴으로써 많은 이들이 가까이에서 보면서 정서적인 교감을 얻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이지요.”

윤 회장이 10년만에 준비한 작품전인 이번 한글꽃꽂이 발표회는 23~24일 이틀동안 빛고을 시민문화관 1층에서 개최된다. 밀알꽃꽂이 연구회와 한글 꽃꽂이연합회, 한국 플라워디자인협회, 광주시 꽃예술작가협회 등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꽃꽂이 작가 50여명의 작품 60여점이 전시된다.

/글·사진=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동아여고 ‘소나레’ 전국 중고생자원봉사대회 은상

2012년 학생들 자발적 결성 모금액 200만원 남구청 전달 매월 화순전남대병원서 공연



동아여고 음악봉사모임 소나레 학생들은 매월 넷째 주 일요일 화순전남대병원 1층 로비에서 작은 연주회를 열고 있다.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과 한국 중등교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6회 전국 중고생자원봉사대회’에서 동아여고등학교(교장 김한국) 음악봉사모임 ‘소나레’(지도교사 최가은)가 은상을 수상했다.

소나레 회장을 맡고 있는 김보은, 김재은 양은 “뜻 깊은 상을 수상할 수 있게 도와준 김한국 교장 선생님, 전영타 교감 선생님, 최가는 지도선생님께 감사 드리며 함께 한 선배들에게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보며 느꼈던 안타까움을 음악을 통해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게 도와 오리라 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간히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몸사가 어려운 것이 아닌 지금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울림”, ‘피집’이라는 뜻을 가진 소나레는 지난 2012년 동아여고에서 학생들이 자

발적으로 만든 동아리다. 음악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자는 취지에 따라 소수인원이 일시적으로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봉사의 참뜻을 터득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렇게 모인 10여 명 학생들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화순전남대병원 1층 로비에서 매월 넷째 주 일요일에 작은 연주회를 열고 있다.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공연은 한기한 주

말 시간에도 많은 이들이 모여 큰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

학생들은 완벽한 연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치유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에는 남구문화회관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마련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열어 400여 명이 참여해 모은 성금 200만원을 남구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상아밀렵 영화 ‘아프리카’

배우 줄리, 메가폰 잡는다



배우 앤젤리나 졸리(39)가 케냐 상아밀렵꾼과 맞서 싸운 유명 환경운동가인 그린 영화 ‘아프리카’에서 직접 메가폰을 잡는다.

영국 BBC와 인디펜던트는 아프리카 제작사 ‘스카이댄스’가 졸리를 이 영화의 감독으로 낙점했다고 21일(현지시간) 전했다. 아프리카는 1980년대 케냐에서 무장 헬리콥터를 동원하는 등 급진적인 방법으로 야생코끼리를 보호에 앞장선 환경운동가 리처드 리키를 다룬 영화다. 리키는 1989년 수렵에 원에 해당하는 12t 규모의 밀렵상아를 나이로비 국립공원에서 불태워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졸리는 “밀렵꾼들과 폭력 대치상황에 빠지면서 인류가 그간 자연에 남긴 족적과 이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깨닫는 한 남자의 얘기”라고 영화를 소개했다. 대본은 ‘포레스트 검프’로 오스카 각본상을 받은 에릭 로스가 집필한다. 졸리는 지난 2007년 영화감독으로 데뷔했으며 ‘아프리카’는 감독 졸리의 4번째 작품이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하축

- ▲김중식(전 완도군수)·구회영(서영대) 씨 아들 민석군 김임태(서강중)·문명옥씨 딸 강양=27일(토) 낮 12시 40분 광주 서구 농성동 라페스타(구 메리어트) 2층 엘루체홀.
- ▲김중안·배옥란씨 장남 정인근 박만우·송순희씨 차녀 회정양=27일(토) 오후 1시 아름다운컨벤션 2층 베르사체홀.

중친회

▲광산 이씨 필문회(회장 이태고) 월례회 및 교양강좌=25일(목) 오후 6시 30분 월산동 우미추어탕 062-369-1171.

동창회

- ▲송원고 총동창회(회장 황명성) 9월 정기월례회=23일(화) 오후 7시 광주 서구 농성동 마리아주웨딩스퀘어 3층 062-384-7447.
- ▲재광 순천 매산고 총동창회(회장 장

진훈) 정기모임=25일(목) 오후 7시 30분 광주 서구 내방동 ‘좋은친구’ 010-3601-7701.

알림

- ▲광주·전남병무청 국군장병 감사편지 운동=30일(화)까지 편지·엽서·응원영상 등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보낼주소·광주시 동구 양림로 119번길 광주전남병무청 운영지원과 우편번호 501-745, 이메일 csp7943@korea.kr 문의 062-230-4420.
- ▲광주중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 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 ▲무등종합사회복지관 벼룩시장=소통·문화·나눔축제 광주 북구 두암3동 삼정초등학교 운동장 9월27일~28일 오후

3~6시 40명 선착순 접수. 참가비(3000원)는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실버카지원에 사용됨. 접수기간 8월18일~9월5일 062-268-0093.

▲화순 호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중풍이나 차대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비틀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모집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여가운영 프로그램 수강생=영어회화, 중국어회화,

컴퓨터, 방송댄스, 요가 월~목 문의 062-951-9461.

▲나주 아동가족상담센터 회원=미술·미로·언어치료, 전화·내방 접수 가능. 비용 1만8000원. 061-332-8991~2.

▲길라잡이 프로그램 회원=(베이비·마사지, 요리만들기, 육아용품 만들기, 육아상식교육, 자조모임 등),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초·중급반 한국어 교육) 회원 모집 062-267-3700.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 회원=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풍·노환), 취사, 청소 가지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 기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충만재가복지센터 회원=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상담·노인복지상담 일반가족 회원가입 상담 062-942-9982.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광주 북성중학교 오전반 5시30분~7시30분. 011-618-7882.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

한 헌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부음

▲안동북서 별세 은성·송찬서 부친상

=발인 23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성태호씨 별세 양길·양호씨 부친상 =발인 23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8분향소 062-231-8908.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101호 故김효순 님(여/56세) 女 : 임주희 夫婿 : 임하동 *발 인: 9월 23일 *장 지: 영락공원	102호 故엄희석 님(남/45세) 子: 엄기영 女: 엄화란 未亡人: 김영희 *발 인: 9월 23일 *장 지: 영락공원
201호 故지재순 님(여/80세) 子/子婦: 김인호/정인자, 김동호/이미숙 女/婿: 김해숙/장준식, 김혜란/주병국, 인숙/이상우, 선옥/이원삼 *발 인: 9월 23일 *장 지: 영락공원	301호 故윤재남 님(여/75세) 子/子婦: 박기영/신미라 女/婿: 박운숙, 박운아, 박윤경/이중협 *발 인: 9월 23일 *장 지: 탐양봉산 선영
401호 故이계익 님(남/86세) 子/子婦: 이일범/이연주, 이우범/차미경, 이상철/황인경 女/婿: 이희원, 이혜숙/김복자, 이정희/홍만석 未亡人: 박계삼 *발 인: 9월 23일 *장 지: 영락공원	402호 故반순남 님(여/88세) 子/子婦: 임석희/박점순, 임석경/김미지, 임병오/박승연 女/婿: 임맹태, 임경태, 임경숙/이대선, 임경민 *발 인: 9월 23일 *장 지: 이양면 선영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imho.com	
문의 (062)227-4000	